



AI페퍼스가 신임 감독으로 장소연 해설위원을 선임했다. 8년간 해설위원을 지낸 장소연 감독은 기본기에 충실한 배구로 팀을 이끌 계획이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선수들 파악 끝났다…기본에 충실한 배구 하겠다”

AI페퍼스 장소연 신임 감독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스축은행 AI 페퍼스가 신임 감독으로 장소연 해설위원을 선임했다. 장소연 감독은 여자배구 국가대표 베테랑 미들블로커 출신으로 2016년 은퇴한 이후 프로배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8년간 해설위원을 하며 코트와 페퍼스를 지켜보며 분석해 온 것들을 바탕으로 ‘기본에 충실한 배구’를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장소연 감독은 현역 시절 한국 여자 배구에서 입지를 단단히 다져오며 여자배구계의 레전드로 평가받았다. 1992년 선경인더스트리에 입단해 실업팀 생활을 시작했고, 1993년부터 2004년까지 대한민국 여자

1993~2004년 국가대표로 활동 한국 배구계의 ‘레전드’ “8년간 해설위원하며 장·단점 분석…시행착오 없게 준비”

배구 국가대표팀에서 활동하며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등 국제 대회에서 활약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프로 리그 생활을 하며 한국 배구계의 레전드로 평가받았다. 2009~2012년에는 KGC 인삼공사(현 정관장)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뛰며 플레이 코치 역할도 수행했다. 장소연 감독은 리그 우승 경험과 베스트 미들블로커, 리그 MVP, 블로킹상, 공격상 등 화려한 수

상 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장소연 감독은 그간 해설위원으로서 페퍼스의 경기를 지켜보며 기술적인 특징과 선수들의 장단점에 대해 분석해 왔다. 장소연 감독은 “그동안 경기의 흐름을 보면서 페퍼스 뿐만 아니라 상대가 될 각 팀들과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지켜봤다. 지도자 경험은 또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8년간의 해설위원 생활을 자산 삼아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기본에 충실한 배구를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나가려 한다. 앞으로 네트 연결 등과 같은 섬세한 것들과 수비 면에서 디테일을 갖추고 싶다. 일단 생각했던 그림을 선수들과 함께 잘 그려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페퍼스는 2023-2024시즌 리그 최다인 23연패 기록과 함께 내부 갈등 문제 등 경기 외적으로도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냈다. 장소연 감독은 선수들의 선수들과의 소통에 집중하며 팀을 하나로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장소연 감독은 “기술적인 지도 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단단하고 끈끈하게 ‘원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실력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보려 한다.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결과도 좋게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믿고 선임해 준 것에 대해 감

사하다. 그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겠다는 무거운 마음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에서 봐왔던 팀에 대한 뜨거운 응원을 실력으로 보답하겠다는 마음이다. 장소연 감독은 “광주에 중계를 갈 때마다 지역에서 팬들이 참 팀을 많이 아껴주고 열정적으로 사랑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경기력으로 보답으로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팬들의 사랑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페퍼스는 장소연 감독과 함께 팀을 이끌어갈 신임 수석코치로 이용희 수석코치를 선임했다. 페퍼스는 두 지도자를 주축으로 새로운 코칭 스태프를 구성하고 다음 시즌 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훈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



아쉽다! LPGA 5위

신지애,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 선두 달리다 더블 보기…11년만의 우승 놓쳐

신지애(35·사진)가 한국 여자 골프의 ‘전설’ 박세리(46)가 이름을 내걸고 주최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서 5위에 올랐다. 신지애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팔로스 버디스 골프클럽(파71·6447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총상금 200만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2개, 더블 보기 하나를 묶어 2오버파 73타를 쳤다. 최종 합계 7언더파 277타를 기록한 신지애는 앤드리아 리(미국), 제스민 수안나뿌라(태국)와 공동 5위로 대회를 마쳤다. 우승을 차지한 벨리 코다(미국·9언더파 275타)와는 두 타 차였다. LPGA 투어 11승을 포함해 각종 투어에서 통산 64승을 거둔 신지애는 이번 대회 3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리며 2013년 2월 ISPS 한다 호주여자오픈 이후 11년 만에 LPGA 투어 대회 우승을 노렸으나 마지막 날 타수를 잃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14시즌부터는 일본 무대에서 주로 활동해 온 그는 올여름

열리는 파리 올림픽 출전을 꿈꾸며 지난해부터 미국과 한국 등 다른 투어 대회 출전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번 대회도 호스트인 박세리에게 요청해 스폰서 초청으로 출전해 상위권 성적을 냈다. 신지애는 경기 중반까지 엘리슨리(미국)나 코다와 공동 선두를 달렸으나 12번 홀(파4)의 더블 보기로 흐름이 꺾인 것이 아쉬웠다. 신지애는 이후 6개 홀에서 모두 파에 그치며 순위를 끌어 올리지 못했다. 그는 “오늘은 바람이 도와주지 않았다. 무척 힘들게 만들었다”고 아쉬워하면서도 “팬들과 함께 즐겁게 했다. 아직 대회가 많이 남았기에 좋은 경연을 했고 앞으로의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다는 올해 1월 열린 드라이브온 챔피언십 이후 약 2개월 만에 트로피를 추가, LPGA 투어 통산 10승을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30만달러(약 4억원)다. /연합뉴스



반갑다! 챔피언스 5위

최경주, PGA 시니어 투어 호그 클래식 공동5위…올 시즌 첫 ‘톱10’

‘탱크’ 최경주(사진)가 올해 처음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최경주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의 뉴포트비치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시니어투어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챔피언스 호그 클래식(총상금 20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8타를 쳐 공동 5위(10언더파 203타)를 차지했다. 최경주가 PGA 투어 챔피언스 대회에서 톱10에 진입한 건 올해 처음이다. 최경주는 이 대회에 앞서 4대 대회에 출전해 모두 20위 이내에 들었지만, 정작 10위 이내에는 오르지 못했다. 최고 성적은 트로피 하산 2세 대회 공동 13위였다. 이날 최경주는 13번 홀까지 4타를 줄여 선두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에 1타차까지 따라붙었지만 17번 홀(파3) 보기로 우승 경쟁에서 물러났다. 해링턴은 16번 홀까지 버디 4개, 더블보기 2개로 제자리를 건

다가 17, 18번 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 우승했다. 최종 합계 14언더파 199타를 적어낸 해링턴은 통차이 자이디(태국)를 1타차로 제치고 이번 시즌 첫 우승이자 PGA 투어 챔피언스 통산 7번째 우승을 거뒀다. 양용은은 2타를 잃고 공동 11위(6언더파 207타)로 대회를 마쳤다. 위창수는 1타를 줄여 공동 15위(5언더파 208타)로 순위가 올랐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